



PROPOSAL

오리멸전 도입관련 제도보완 건의

대한석유협회

지난 4월 15일 한국남부발전은 베네주엘라의 Bitor사와 오리멸전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중유를 사용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오리멸전의 도입은 원유의 가격이 높은 현재는 경제성이 있지만 향후 원유가의 하락시에는 경제성이 의문시되며, 독점공급체계, 생산량의 제약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정부의 대체에너지 이용 확대정책 및 경제성을 이유로 오리멸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현재 중유에 부과되고 있는 제반의무를 오리멸전에도 부과하여, 최소한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간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렇지 않을 경우, 중유의 공급과잉심화에 따른 저가수출로 국제수지 악화 및 국내 정유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내 정유업의 부실 초래 및 소비지경제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또한, 동 연료는 수급불안시에는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국내 경제에 석유제품과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즉, 석유제품에 비축의무를 부과하여 비상시를 대비하듯이 오리멸전의 수급불안시를 대비하여도 비축의무 부과가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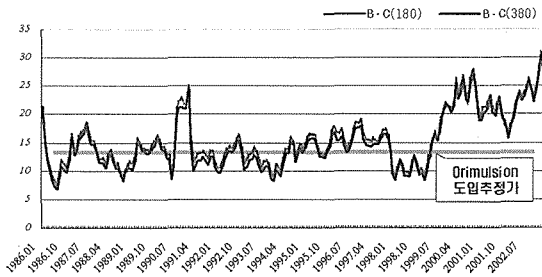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업체는 오리멸전이란 새로운 연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미비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기존의 석유제품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림.

세부적으로는 현재 중유에 부과되고 있는 특수세, 원유 및 석유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석유수입부과금과 비축의무를 오리멸전에도 부과하시어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여건 조성에, 업체는 원가절감 등 경쟁력 강화에 진력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오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 바람. 🙏

Orimulsion 대비 B-C 가격비교

최근 고유가로 인하여 Orimulsion 도입가격이 B-C유대비 경제성이 있어 보이나,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Orimulsion 도입 경제성은 세금, 비축 등 정부부문에서 Incentive가 없더라도 도입가격 자체에서 경제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정부부문 비용에서 양 에너지원간 차등을 둘 경우 자칫 Orimulsion 도입가격에서 다소 경제성이 낮더라도 계약 관계 등으로 지속적으로 국내에 도입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 등 정부부문에서의 차등은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저해할 것임.



주 1) Orimulsion 도입추정가는 도입비용 60\$/ton에 중유대비 열량 70%를 감안하되, 장기계약으로 가격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
 = 60\$ ÷ 6.5 = 9.231\$/bbl
 = 9.231\$/bbl ÷ 70% = 13.188\$/bbl

세금차이 비교

2006년 에너지세계개편이 완료되면 Orimulsion은 B-C유대비 리터당 43원의 세금이 적게 부과되게 되어, Orimulsion 도입경제성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세금차이에 따라 발전연료의 Orimulsion으로의 대체가 가속화될 것임.

따라서, 발전용 중유가 Orimulsion으로 모두 대체될 경우 연간 2,400억원의 정부 세수가 감소할 것이며, 정부 세수감소분은 결국 Orimulsion을 도입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의 비용만 경감시켜주는 형평성 문제를 유발함.

특히, 정부는 최근 교통세법을 개정하여 동일한 연료로 사용되는 대체연료에 대해서 기존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교통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Orimulsion도 B-C유와 동일한 연료로 사용되는 바 특소세 등 세금 부과가 타당함.

(단위 : 원/리터)

구 분	Orimulsion(A)		B-C유(C)		C-A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도입가격	103.68		103.68		0.00
저장시설입차료	8.47		8.47		0.00
기타 제비용	6.05		6.05		0.00
관 세	5.91	5%	8.27	7%	2.36
수입부과금	0.00	없음	14.00		14.00
특소세	0.00	없음	20.00	20원/Ltr	20.00
교육세	0.00	없음	3.00	특소세의 15%	3.00
판매시 부가세	12.41		16.35		3.94
합 계	136.52		179.82		43.30

- ① Orimulsion 도입가(60\$/ton, 중유대비 열량 70%) 103.68원/리터와 B-C유 가격을 동일하게 가정하고 세금만 비교
- ② B-C유 특소세 20원/리터는 2006년 세계개편 완료 기준

(단위 : 원/천배럴, 억원/년)

구 분	발전용중유 소비량	세금차이	세 액	비 고 (B-C유 특소세)
2000	38,528	18.0	1,103	-
2001	41,529	21.8	1,439	3W/ℓ
2002	35,476	25.6	1,443	6W/ℓ
2006~	35,476	43.3	2,442	20W/ℓ

비축의무비용

B-C유는 Orimulsion대비 비축의무 및 저장시설 등록의 무 비용 4.55W/ℓ 을 추가 부담

▶ 저장시설의무 구비 비용

발전용 중유물량	35,476 천Bbl	60일
의무저장시설	5,832 천Bbl	
저장시설 건설비용	1,958 억원	KNOC 비축시설건설단가
- 건설단가	33,580 W/B	
저장시설 비용단가	3.47 W/ℓ	
- 감가상각비	1.74 W/ℓ	20년
- 이자비용	1.74 W/ℓ	
		이자율 5%

▶ 비축의무 비용

발전용 중유물량	35,476 천Bbl	40일
비축의무량	3,888 천Bbl	
비축의무 비용	61 억원	25\$/B, 1250W/\$기준, 이자율 5%
비축비용 단가	1.08 W/ℓ	